성녀들 -> 진짜 레니에스 신의 대리들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

주인공->미르라/밀라(몰약-꽃말 진실) 레첸스(recens 시작). 자살하면서 소원을 빌었기 때문. 그 소원을 잘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일레네였음.

밀라는 본래 새끼 선생님이자 부담임. 1년정도 전에 카벨 왕국의 잔당을 침공하기 위해 조종하다가 엇나간(황제 힘이 떨어져서) 마물들이 밀라네 반 아이들이 실습하는 곳을 침공한다. 여긴 황제의 끄나풀인 현재 선생(무도회떄 처단당함)이 이끈거임. 선생 둘을 죽이고 자기가 자리 대신하려고.

여기서 밀라는 본 담임을 잃고 학생의 반절 이상을 잃게 된다. 남주네 누나도 여기 참여했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서 자살로 위장되어 심장이 뽑혔고. 밀라는 이 일로 손가락질 당하다 아이들을 살리려는 흑마법을 하려다 일레인과 링크되고 누나는 자살로 위장당함.

마법사 사회에서는 밀라가 본 담임과 반절 아이들을 미끼로 도망친 사람처럼 퍼져있음. 죄책감에 허덕이던 밀라는 이거에 반박도 못하고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림. 심지어 마물도 그녀가 부른게아니냐는 식으로 퍼짐.

남주 -> 학대 당하는 이유는 카벨 왕국의 후예이기 때문. 공작가의 여동생이 피난와서 애만 두고 갔는데 그게 남주와 남주의 누나였음.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남주는 밀라를 원망함. 그래도 결국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건 당신 아닌가요?

실리카 -> 밀라의 친구. 밀라가 학생들을 전부 몰살시킨(?) 일에 처했을 때 항의했다가 밉보임. 악신의 힘이 약해진 후 태어난 첫 아이로 현 세상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그녀는 밀라를 아끼지만 동시에 기억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밀라가 자신과의 과거 일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카벨 왕국 -> 땅의 근원이자 마법의 근원인 땅의 정기를 빼앗겼다.(큰 보석의 형태로 진상됨) 이전 성녀(악녀의 심장)를 취하지 못해서 대리로 박아둔 것 중 하나인데… 이 힘의 일부를 이용하여 신전의 나무(씨앗)을 자기의 권속으로 유지하고 있음. 카벨 왕국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땅의 정기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음.

아카데미 선생 -> 황제로부터 마물을 일시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을 받음. 처음에는 그저 밀라네를 죽이려 한거지만 이게 폭주해서 무도회에 마물을 끌고옴.

백작영애(남주의 누나) -> 짭 성녀임. 황제를 의심하고 뒤를 캐다가 미움을 삼. 동시에 악녀의 심장을 대신할 심장으로 영검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취한 힘임.

성녀 -> 짭성녀2. 악녀의 심장 대신3. 이건 몸을 갈아탈 축복을 위해서. 이거때매 자기 딸인 황녀와 성녀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함.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떠오르는 천공섬과 제국의 결계. 천공섬의 인간 연료를 넣는 별의 탑은 황가만이 관리할 수 있다. 황가는 대대로 보라 눈을 지녔다.

사실 황가는 악신. 신혈이 흐르는 황가의 자손을 갈아타며 영생을 살았다. 악신은 몸을 차지한 숙주의 기억을 읽어 어느정도 비슷하게 행동하는데 헬리스는 진짜 냉정한 놈이었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음.

귀계의 문이 열리고 악신(마물들의 신)은 오래전 하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로, 힘을 키워 다시 하늘을 점령하려 하고있음.

그는 자신의 힘을 위해 그림자들의 보물 세 개를 훔쳐서 인간 세상에 자리잡음. 그는 이 성스러운 보물들을 자신의 권속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쓰면서 힘을 비축함.

각각 검과 축복, 그리고 씨앗이었음.

1.씨앗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씨앗임. (그래서 이걸 키우고 있음 하늘로 올ㄹ가서 침략하려고)

2.검은 모든 것을 벨 수 있는 영검(신을 베기위해),

3.축복은 그림자가 오래 살고 빛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축복. 축복은 강한 마력과 생명력을 대가로 함. 악신은 축복을 이용해 왕족의 몸을 갈아탐.

이를 위해 성녀의 힘을 이용하여 몸을 갈아타고 결계를 세워서(막, 숲, 큰 강) 밖과의 교류를 상당부분 막고 있음. 바치는 생명은 아무나가 아니라 강한 마력을 지닌 흔히 말하는 ‘성녀’를 주 재료로 주기적으로 여러 마력이 있는 사람을 바친다. 그리고 인간들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것들을 훔쳐갔음.(누구나 사용 가능한 마력… 일부만 사용 가능하게됨-> 파엠 세계관이랑 비슷) 그리고 인간들의 제국에 대규모 세뇌를 걸어둚. (황제 힘이 약해지면서 세뇌가 풀려가고 실리카 같은 애들이 태어남)

그리고 자신들의 신물을 되찾으려는 그림자를 마물 취급해서 베고 있음. 진짜 마물은 신인척 하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침공올떄 그림자 반, 진짜 마물 반임. 성녀는 그림자들과 계약을 맺고 악신을 퇴치하려 한 것임. 마물이 나오는 곳은 악신이 열어둔 것. 인간 사냥을 해서 피를 먹고 강해지라고 냅둔 것. 필요할 때 자기가 쓰려고. 그리고 하늘을 열었을 때 자신의 군대로 쓰려고.

마물 취급 당하는 그림자들은(사실 요정족임) 주기적으로 인간들의 제국을 습격하여 생존터를 훼방놓고는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마법과 검을 쓰는 부대가 발전했다.

언니는 진짜 성녀로 황후 알로이스에게 접근해서 황태자의 ‘축복’ 일부를 훔쳐왔음. 축복이 담긴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 이거때매 알로이스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언니가 준 유품은 자신의 심장과 축복이 있는 보석을 넘겨줌.

축복 -> 황제와 황손을 낳는 자에게 깃듦

영검 -> 황제와 일부 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중앙 신전에 결계됨

씨앗 -> 아카데미에서 신수라는 이유로 잠들어 있음

남주 카르델은 여주와 같은 반 요정족.

데네브가 겪은 트린키피아의 난때 진짜 마물과 요정과 함께 숙청당함. 이때부터 데네브는 이상함을 느낌. (사유->악녀가 축복을 훔쳐가서 인간들의 세뇌가 느슨해졌기 때문)

3황자 알테어는 황제가 될 마음은 없었지만 부모님에게 사랑 받고 싶어서 여주 일행을 사사건건 방해함.

이로서 유겐은 일레네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북부에 유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일레네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지 못하고 꾸역꾸역 살아가겠지. 그는 지켜야 할 보석이 있었으니.

테네프는 황제의 본명 악신의 본명.

악녀 언니 때문에 집안 몰살. 마지막 순간에 비웃는 황태자를 보고 신에게 대가를 치르고 회귀하게됨. 회귀하고 보니 약혼자한테 깨졌던 15세의 날이었음. 리비엘은 너무나도 당당한데 언니인 그레이사는 동생 취급에 분노. 다시는 널 비웃게 만들지 않겠다 약속. 리비엘은 여기가 언니의 ‘악녀’ 시발점임을 느낌.

과거의 리비엘은 소심하고 병약했음. 그래서 언니를 말리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음. 이번에는 표현하고자 함.

마법사의 심장에 만들어지는 ‘마석’은 쓰임새가 무궁무진한데 이걸 아는 건 왕가와 신전쪽 일부. 이거때매 악녀 패싱해서 언니를 죽였음. 요정의 마석을(사실 동생꺼) 얻기 위해. 황태자는 무궁한 힘과 영생을 목표로 요정의 마석을 찾고 있음.

동생은 반인반요(반요정) 악녀와 이복동생. 반요이기 때문에 수명이 반토막이고 그녀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황태자의 비밀을 알게됨.

~~동생은 사실 요정의 파괴파가 천공섬을 정복하기 위해 인간과 함떠서 애를 만들고 심어둔 요정임. 반인반요인 동생이 빛의 탑에 있는 결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 사람으로서 통과 가능하고 요정으로서 결계를 깸. 언젠가 요정과 인간이 화합하는 날을 기다리며 만든 결계였기 때문.~~

~~그러나 언니가 동생에게 잘해줘서 악한 요정이 숨어들 기회를 놓쳤고 세계는 구해짐.~~

“동생을 위해 개방을 원한다, 정에 휘둘린다 욕하지요. 하지만 내가 황태자였다면? 동생을 위한 마음이라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15세. 리비엘은 너무 약한 마법사라는 이유로 약혼자에게 차이고 마음의 병을 얻음. 아카데미에 가지 않고 집에만 누워있음.~~

~~아카데미에는 언니 그레이사만 가게 되고 여기서 본래 여주와 황태자를 만나게됨.~~

~~리비엘은 이번에 언니의 연애사를 말리기 위해 따라 아카데미에 입학함.~~

2회차 인생을 시작한 후 밀라는 평범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함. 실리카는 레니에스 성인 무도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밀라를 걱정.

안 갈 수 없음. 마법사는 매년 방문해야함. (사유: 황제가 특수한 힘을 가진 마법사와 성녀를 알아보기 위해. 600년 전 반란을 핑계로 생긴 관습. 에브릴 청사의 무도회에 4년에 1번은 방문해야함. )

자기 옆에 꼭 붙어있으라 하지만 밀라는 그러질 못함. 실리카가 없어지자 사람들이 욕함. 그러나 자신이 파혼당한 무도회에서 나타난 그림자와(밀라를 찾으러 옴) 언니를 욕하는 모든 것을 듣는 순간 아직 결판내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 삶을 얻었다 생각함.

그녀는 마법으로 그림자를 처단하고 무도회에서 황제에게 아첨하러 온 아카데미의 마법 선생이자 학생 몰살의 원흉. 원흉은 무도회에서 흑마법이 폭주해서 마물을 불러일으키고 밀라네 사건 당시 원흉이 그임이 밝혀짐. 밀라는 복직이 정해짐.

이 무도회에서 밀라는 뒷뜰 가서 쉬는데, 그때 억지로 양부모에게 끌려온(양부모는 유겐처럼 어린 남주가 보이길 원했음) 남주는 뒤뜰 가서 농땡이 중이었음. 둘은 그때 처음 만남.

남주 14살 때 20세 선생님

남주가 14살인 1년간 2~3가지 에피

1. 아카데미에 있는 신목 에피. 여주가 가서 폭주하고 아이들과 남주를 지키면서 비밀을 보게됨

2. 카벨 왕국이 신전쪽 무력화 시키려고 사건을 저지름. 이 사건으로 무언가 제도가 바뀌었고 4년 뒤 검 탈취 사건 일어남 (복선) 여기서 성녀와 황녀와 엮임

3. 심장을 빼앗긴 시체가 나오는 사건. 단서를 잡기 위해 학원 지하 탐험. 여긴 유겐이 관여함

마지막 에피에서 남주가 누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누나 심장이 의식을 위해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봄) 난리치고 남주는 외국으로 강제 유학가게됨. 지하 갱도는 무너지고… 3황제 세력이 큰 피해를 입음. 2황녀가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이 되어 이름을 드높힘. 왕위 싸움에 눈 뒤집힌 후비가 눈 뒤집힘.

레피어스의 비극(악녀에게 반란 자금을 대줬다는 이유로 변경백과 카벨 왕국이 숙청당함) 때 제국 악신에게 착취당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들과 일어났지만 처참하게 짓밟힘. 이때 잔당들이 제국에 들어와 이런저런 일을 펼치고 있음. -> 남주가 유학가서 만나는 것도 카벨왕국사람들

남주가 떠난 2년 후 1년 휴직 때리고 유겐의 권유로 성녀를 호위하며 성지에 다녀오게 됨. 이떄 에피 (남주와 만남) -> 이쯤부터 황제가 성녀를 거슬리게 생각하고 악녀로 몰아 처리하려고 함. 자기의 후비(3황자 엄마이자 중간보스)를 이용해 성녀를 결혼으로 압박하고 거절하자 성지(자기 영향력)에 보낸 것도 황제

자객이 찾아오고 성녀와 여주는 무간의 숲에 빠지게됨. 그러나 반인반요인 여주 때문에 둘을 헤쳐나옴. 이때 성녀가 결혼을 거절한 이유, 개인사(황녀를 좋아하는 이유)를 듣게됨 -> 무간 숲에서 정체가 탄로나고 언니의 유품을 빼앗길뻔함 -> 무간에 숲에서 헤맬 때 남주가 둘을 구해줌.

이후 성지에 가고 성지의 의식이 숲에서 본 의식임을 떠올리며 악신에 대한 확신을 얻음.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증거를 잡는 계기가 됨. (나중에 확신 증거가 되어서 후반에 밝혀짐)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게 카벨 왕국 사람들. 말이 통하는 그림자와 함께 동행하는 망국의 사람들. -> 이전에 있었던 2번째 사건 덕분에 뭘 조작했고 교회의 비리 하나를 까발리고 옴.

남주와 여주 미래를 기약하고 헤어짐

쫓겨난 후 5년 뒤(19세) 남주가 군공을 세우면서 돌아옴. 악신은 슬슬 견디기가 어려웠고 새 몸을 위해 황위 시험을 하겠다 공표.

왕위 쟁탈전 심해짐. 이때 에피 3개

4번째 에피에서 해결되고 엔딩